

「랏셀」의 哲學 及 社會改造論 (四)

저자미상

現代文明의 根本的 缺陷은 참으로 여게 잇는 거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更히 一步를 進하야 이 缺陷을 如何히 할가하는 點에 잇서서 比에서 改造□ 必要가 生하는 것이다. 『랏셀』에 依하면 創造의 生活을 가장 豐滿하게 하고 所有의 生活을 가장 滅□되는 社會가 가장 理想的 社會가 아니면 아니 되겟다고 하였다.

이제 『랏셀』의 改造論의 概要를 알기 爲하야 『社會改造』·『原理』 中에 重要한 部分을 □□코져 한다.

우리가 國家의 일만 생각하고 잇는 境遇에는 우리는 아모 것도 할 수 업는 것을 生覺하지 아니하면 안니 될 것이다. 戰爭을 終熄시키는 일도 國家와 私有財産의 過度한 權力을 破壞하는 일도 教育에 식로운 生命을 가져오는 일도 모든 이러한 것이 □避 一般의 政治上의 手段에 依하야서는 決코 도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全世界가 相底에 잇서 尙相違된 精神에서 支配되는 일을 무엇보담 몬져 암지 안니하면 안니될 것이다. ㄱ리하야 如斯히 精神은 決코 一朝日夕의 努力으로 變하여지지 아늘 것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勇氣와 忍耐가 잇는 以上에는 어너 날이던지 반드시 人類가 比에 依하야 改造될 것을 確信할 수가 있다. 如斯히 見地로부터 몬져 第一에 우리가 할 일과 쏘는 하지 아르면 아니 될 일은 우리가 善이라고 矚각하는 生活의 種類와 우리가 世界에 바라는 變化의 種類와를 自己의 心中에 明□히 하여둘 일이다. 信仰의 自由는 □□小數의 大□哲學者의 孤獨한 思索이였다. 理論으로서의 『데모크라시』는 『크롬웰』 軍□의 小數者局에 依하야 나온 것이다.

王政復古 以後에 그 사람들이 美國에 移人하야 거게서 獨立戰爭이라는 結果를 어뎠다. 『와싱턴[워싱턴]』을 助하야 戰鬪한 『라과이에트』와 其他 佛蘭西人이 『데모크라시』의 理論를 佛蘭西에 가져갔다. ㄱ리하야 『루-소』의 敎理와 結合하야 革命을 □□한 것이다. 社會主義는 그 價値가 如何히 성사된다 하드라도 한 獨大한 努力으로 比에 依한 經濟生活과 政治生活을 變化시키면서 있다. 그러나 그 社會主義는 極히 小數의 孤獨한 理論家로부터 그

端을 發하였고, 婦人의 運命은 이제 非常히 有力하게 되어가나, 그것도 最初는 小數의 極히 非實階級理想主義者 間에서 이르는 것이다. 卽 이것을 一言으로 □之하면, 思想의 力은 그 最後에 잇서서 그것 以外 모든 人間의 力보담도 偉大한 것이다. 思索할 能力이 잇는 모든 人士, 人間의 必要에 從하여 생각할 想像力을 가진 人士는 그 目的이라 할 善을 生前에 잇서서 到達할 일은 되지 안트라도 반드시 將來에 達成할 수는 있다.

『그러나 思想의 力에 依하여 世界를 改造코져 하는 사람은 現在에 잇서서 世界의 援助를 이러바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當時에 流行하든 信仰과 習慣호 그뒤로 바다□萬一 스사로 反對하지 아니하면 世間은 모다 自己들의 一派와 갖치 생각하여 何等의 疑惑도 생기지 안케 人生을 空度케 하얏다.』

『世界에 關한 식로운 思想은 이러한 氣樂에 同意할 수는 決코 업슬 것이다. 比에 對하여서는 옛던 意味의 知的 超越과 內部的으로 世界를 支配하며 쏘한 世界가 □出한 大□를 支配할 力에 必要하게 되어왔다. 무럿 孤獨의 맛을 보지 아니하면 식로운 思想은 그 目的을 達할수어다. 如斯히 大概의 思想家는 因習的으로 되든지 쏘는 그러치 아니하면 無氣力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